

마을 축제, 인문학으로 물들다

‘인문樂 페스티벌’
광산구 27~11월 2일

**철학콘서트·스토리텔링
음악페스티벌·토론회도**

광주 역사·인문·예술 활용 축제 풍성

강의실을 벗어난 인문학이 광주의 마을을 물들이고 있다. 광주 지역 마을들이 마을의 역사와 인물, 예술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활용한 ‘인문학 마을 축제’를 잇따라 열고 있다.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등 단순히 웃고 즐기던 마을 축제에서 벗어나 공연, 전시, 스토리텔링, 철학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축제를 꾸미고 있다.

양림동은 광주의 보물 같은 곳이다. 스며 있는 예술인들의 삶, 곳곳에 남아 있는 100년 역사의 근대 문화 유산,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주민과 예술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양림동의 보물이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문학 마을 축제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인문학 축제 ‘2014 굿모닝! 양림’이 17일부터 19일까지 양림동 및 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남구가 주최하고, 남구문화원 및 굿모닝 양림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양림동 지역 유산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시, 공연, 참여 프로그램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양림동에서 나고, 자란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와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배동신·황영성·우재희·이강하·한희원씨 등 양림동 화가들의 전시가 31일까지 515갤러리에서 열리고, 최승호가옥에서는 ‘최인준의 정원 뮤지엄’ 행사가 개최된다. 양림미술관에서는 ‘그림으로 본 추억과 현재의 양림’전, ‘굿모닝 양림 100년 사진’

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조소혜 작가 아카이브’전이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개막날인 17일 오후 7시에는 사직공원 내 옛 수영장에서 ‘가을 숲 속 음악회’가 열린다. 이날 남궁옥분과 부활 4번째 보컬 김재희, 성악가 이진진, CNS금관5중주 등이 무대에 오른다. 18일 오후 7시에는 김종환, 소리새, 고한우 등이 출연하는 KBC공개방송 제창주 추억찾기 행사가 진행되고, 19일 오후 1시에는 한보리, 오영목, 박양희씨가 김현승, 문병란 시인 등을 노래한다. 이 밖에도 ‘시낭송대회’ ‘통기타 가을의 노래’ ‘양림문화난장’ ‘다형문화대전’ ‘호랑가시나무장작소 작가와의 만남’ ‘도금도금작소 아트마켓’ 등 행사가 열린다. 문의 062-671-7356.

광산구도 올해 처음 인문학 축제인 ‘인문樂(락) 페스티벌’(총감독 장용석)을 시작한다. 광산구와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은 오는 27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산구 일원에서 ‘인문樂 페스티벌, 경계를 넘어 세계로 향하다’를 주제로 축제를 진행한다.

고봉기대승, 국창 임방울, 용이 박용철 등 광산구의 인문학적 요소를 재해석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특히 광산구는 행사가 진행되는 7일을 인문주간으로 정하고 날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7일 오후 5시30분에는 광산구청 광장에서 ‘글로벌 광산, 연주하라’를 주제로 ‘음악의樂’ 행사가 열린다. 이날에는 인문주간 선포식, 광산주민이 생각

하는 인문주간 및 인문도시 행사, 올해의 인문인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28일 오후 4시부터는 공익지원활동센터에서 ‘책 속의 나침반’(문학의樂)을 주제로 ‘북 페스티벌’이, 29일 오후 4시부터는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관음으로 마음읽기’(철학의樂)를 주제로 ‘광산 스토리텔링’, ‘시간을 나누다’ 행사가 열린다.

이밖에도 ‘구연동화’, ‘인형극 공연’, ‘철학콘서트’ 등으로 진행되는 ‘동심으로 어루만지다’(30일 운남동어린이도서관, 월봉서원) 행사와 ‘멈춤과 흐름’(31일 공익지원활동센터) 행사가 마련돼 있다.

11월 1일에는 쌍암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음악 페스티벌과 폐막식이, 11월2일 공익지원활동센터에서는 ‘불관용의 벽을 넘어 관음의 인문도시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산구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박구용 교수), 광주시교육청이 함께 신청한 교육부의 ‘2014 인문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기획됐다. 문의 062-431-633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작곡가 김연준 탄생 100주년 기념

17일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올해는 ‘청산에 살리라’, ‘비가’로 유명한 작곡가 백남 김연준(1914~2008·사진)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매달 한 차례씩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숙)의 10월 행사는 김연준 선생을 기리는 가곡들로 꾸며진다. 17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 티브라운.

김연준 선생은 ‘시인의 죽음’ 등 가곡 1610곡과 다수의 성가곡을 작곡했으며,

1979년 독일 보쿰대학의 초청으로 7개 도시에서 ‘한국 음악의 밤’ 연주회를 열었다. 1981년에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연주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 배우는 노래는 박재삼 시에 곡을 붙인 ‘임의 초상’이다. 특별공연으로는 대성여고 1학년 하은영 양의 ‘무곡’, 박현씨의 ‘끝없는 사냥’ 등이 준비돼 있으며, 초청성악가 테너 장호영씨가 ‘청산에 살리라’를 연주한다.

추억의 노래는 ‘가을밤’ ‘가을’ ‘아 가을인가’ 등이고, 로터스 중창단이 ‘그대는 그날’을 들려준다. 사냥송가 김해숙씨가 ‘가을의 노래’를 낭송하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함께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카페(http://cafe.daum.net/gjkron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멍 든 자연에 위로의 손길

스토아어바나 25일까지 강남구전

석류 열매에서 터져나오는 붉은 씨앗 때문에 눈이 시리고, 그윽한 모과 향기에 코가 즐거운 가을이다. 풍성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양화가 강남구씨의 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동명동 스토아어바나에서 열린다. 가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모과와 석류 연작을 비롯해 꽃, 나무, 바위, 들판 등 사계의 모습을 화폭에 옮긴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석류 연작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배경을 단색으로 처리하고, 탐스러운 석류 알맹이를 붉은 보석처럼 표현한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든다. 특히 알알이 밀도 있게 표현된 작은 알맹이와 탐스럽게 벌어진 열매가 풍성함을 더한다.

태양만큼 짙은 붉은 배경 속에 자리한 노오란 해바라기는 석류와는 또 다르게 시선을 잡아끌고, 사람들의 굴곡진 삶처럼 휘어진 매화 나무에 핀 꽃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인간에 의해 멍들고 지친 자연을 어루만지



‘석류’

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순창 출신인 강남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모두 24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70-8885-814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 코마 작업세계

고흥 남포미술관 내달 2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11월2일까지 KOMA(코마) 작가 초대전 ‘Street Pop_The new lif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태지 캠퍼스무대’, ‘M-net 합합터바비무대’ 등 활기찬 콘서트 무대 아트웍과 국내 힙합아티스트들의 앨범 아트웍, 전시회 및 그래피티 강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 KOMA의 작업세계를 조명하는 전시다.

작가는 그래피티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꾸준한 그래피티 작업과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다. 최근에는 그래피티와 팝 아트를 접목한 독자적인 아티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왕관,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들을 그래피티에 접목시킨 작업들을 보여준다. 강렬한 검정라인들과 물감이 흘러내린 듯한 흔적,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 화려한 색상들의 조합으로 대변되는 코마의 작업은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의 그래피티와는 대별된다. 문의 061-832-000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for the love of pop crown’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일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